



더 나은 미래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한센

# HANSEN

Vol. 107 2021

7.8



# 다시 뛰기 위한 심포의 시간



## 02 인사말

가을을 기다리며...

## ● 한센 포커스

### 04 스페셜 리포트

- 제3기 한센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
- 한센인 피해사건 추가 신고에 관한 공고

### 08 한센 리포트

- 치매예방교육 종강식
- 시·도지부장 회의
- 윤준병 국회의원과 면담
- 한센병(인) 편견해소를 위한 라디오 CM, SNS 채널에 홍보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면담 / 전북대 최원규 교수와 면담
- 영신마을 집중호우 관련 위로 방문
- 총연합회 카카오톡 추가 안내

## ● 한센 탐방

### 18 지부는 지금

- 경기지부장 이·취임식

- 영신마을 호우피해에 숨은 영웅들
- 봉사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양지해피하우스

### 22 유관단체 동정

(사)한국한센복지협회

### 24 한국한센역사속인물

손양원 목사

## ● 한센 공감

### 29 소통하는 한센

- 제1회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 백서 및 남포미술관장 회고록 발간
- 소록예술회 순회전

### 33 함께하는 한센

- 옛 친구
- 매미의 일생
-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 치매예방 교육을 마치며

## 38 한센이 만난 사람

김예원 변호사

## ● 한센 이모저모

### 43 정착마을 풍경

청원마을

### 44 SNS 속 코로나19 백신 인증샷

### 46 정보 알리미

- 커피박 활용법
- 누루면 피로가 풀려요
- 수면무호흡증 방지하면 삶의 질 저하
- 하반기 변경되는 질병·보건복지 정책
- 코로나19 예방 접종계획 바로알기

### 60 배움교실

- 요즘 이 책
- 이달의 사자성어
- 중국어 교실

### 62 독자들의 공간

- 낱말퀴즈
- 한센게시판
- 후원자 모집



4



38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제19권 제4호 통권 제107호

발행일 2021년 7·8월호 발행

발행·편집인 이길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 본 책자는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http://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mailto: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성림디엔피

격월간 비매품



## 가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나는 계절,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계절, 여름입니다. 여름은 식물들이 가장 많이 키를 키우고 가장 많이 잎을 키우고 가장 선명한 나뭇잎 색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은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는 자연과 식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태양으로 훌쩍 자란 식물들 덕분에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가을에는 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맞이하고자 여름의 폭염을 참고 견디며 변함없는 열정과 신념으로 한센 가족을 위해 총연합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6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영상회의에 참석해 한센 가

족들의 고통화를 고려해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조속한 국가의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윤준병 국회의원과 총연합회 추진사업을 비롯하여 한센인 현안사항 및 기타 제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주요 한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한센인 복지 및 인권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과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센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남 여수시의 여천마을, 도성마을 치매예방교육 종강식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한센



가족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은 치매 예방과 동시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고독감, 스트레스, 우울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한센 가족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센 가족분들의 건강 유지와 행복을 드리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여 다양한 사업 및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총연합회는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속에 한센 가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 인단체로서 국회 및 정부, 유관단체와 함께 한센 가족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도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센 가족분들은 사상 초유의 역경 속에서도 복지의 질적

인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센 가족의 복지와 인권 발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당국 및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한센 가족과 모든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에 계신 한센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동참을 당부 드리며, 우리 스스로가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나의 안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내주시고 한시바삐 이 상황이 완화되어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에서 한센 가족들을 위한 방역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



▲ 회의 현장

이길용 총연합회회장은 지난 6월 30일(수) 오후 2시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회의가 진행됐다. 이길용 회장은 회의에서 한센가족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발굴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법령에 따른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 수술을 당한 사건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해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등이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성된 1~2기 위원회에서는 한센인 피해사건 14개를 의결하고 피해자 6,462명을 결정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위)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신고에 관한 공고

한센인사건법에 의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는 '09 ~ '13년까지(4년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 회의 심사·결정 후 종료('13년) 되었으나, 당초 위원회 활동기간 중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한센인 피해 추가 수요 발생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9. 30

### 2. 신고장소

: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관 2층 피해신고센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 (우편번호 : 16048)

### 3. 신고인

- 피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가족
  - 가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4. 한센인 피해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45.8.16~1963.2.8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45.8.20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 1962.7.10~1964.7.25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 1947. 6월경 안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실종 관련해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49. 9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진압과정에서 무안군 연동에 거주하던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7월 함안군 물문리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9월 한국전쟁 중 나주 냇골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7.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 비토리섬을 개간하던 중 한센인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63년 2월 9일 이후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63. 12월 원주 대명구호병원에 입원한 한센인이 양평 양수리에서 가옥을 짓던 중 폭행, 가옥 파괴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해방 이후 1954년까지 소록도병원에서 나균검사 등을 위하여 한센인이 흉골골수천자 시술을 당한 사건
- 1965년 의성 금성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반대와 관련하여 경애농원 한센인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1979년 부산 용산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반대와 관련하여 용호농원 한센인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1964년경 부산 일광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반대와 관련하여 삼덕농원 한센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
- 1963년경 김천 이발관 이발거부와 관련하여 삼애농원 한센인이 경찰에게 피해를 당한 사건
- 1953년에서 1970년대까지 부산 성화원 한센인이 정착촌 내에서 폭행,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1976년경 김천 목욕탕 주인의 신고로 인한 충돌로 삼애농원 한센인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

## 5. 신고방법

- 신고인은 피해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 피해신고센터에 접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보증인은 피해사건 당시 피해내용을 알고 있는 자) 1부
  - 신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
- ※ 별지서식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추진단 홈페이지([www.hansentruth.kr](http://www.hansentruth.kr))에서 다운로드
- ※ 문의처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 피해신고센터(☎070-4360-8600~1)



## “찾아가는 교육, 언제나 청춘”

### 치매예방교육 종강식 개최



▲ 도성마을 치매예방교육 종강식

종강식에는 마을 대표 및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지난 5월부터 여수 치매예방센터(주순자 대표)를 통해 운영된 치매예방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주 2회씩 2개월간(총 15회)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력, 지남력 등 인지 기능 활성화를 통한 치매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 됐다. 특히 △ 석고방향제 만들기 △ 인지건강 보드게임 △ 손유희 체조 △ 밴드놀이를 이용한 근력운동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기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가 수업을 듣는 것처럼 모든 교육이 흥미로웠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면서 “기억력 향상은 물론 우울감도 많이 해소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우리 총연합회는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를 교육생들에게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7월 8일(목), 7월 15일(목) 한센인 정착마을인 여천마을(전남 여수시, 이희우 대표), 도성마을(전남 여수시, 설학순 대표)에서 각각 치매예방교육 종강식을 가졌다.



▲ 여천마을 치매예방교육 종강식

치매예방교육은 전문 인력들이 한센인 정착마을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펼쳐 장애와 고령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느꼈던 한센인이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하여 스스로 치매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우리 총연합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수 인원으로 교육 운영, 교육생에 대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의무화,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추진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가 만든 예쁜 냐비받침대~ (도성마을)



▲ 성과물과 함께 소감 발표(여천마을)



▲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도성마을)

## 주요 한센 현안 논의를 위한 시·도지부장 회의 개최



우리 총연합회는 7월 2일(금) 세종시에서 이길용 총연합회장(이하 이회장)을 비롯하여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처와 동시에 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 대책 및 경쟁력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 등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도지부장 회의를 마련하게 됐다”며 “2021년 하반기에도 시·도지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부장님들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2021년 하반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지부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지부장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하반기 운영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등을 실시한 후 개최되었다.



## 윤준병 국회의원과 한센 관련 현안 논의



▲ 김희주 대표, 이길용 총연합회장, 윤준병 국회의원, 방부혁 대표(왼쪽부터)

우리 총연합회는 7월 5일(월) 오후 3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 고창군))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김희주 정애마을 대표(전북 정읍시), 방부혁 동혜마을 대표(전북 고창군) 등 총연합회 임직원들이 면담에 참석했으며, ▲호암마을 토굴형 치유센터 건립 ▲기타 한센 현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총연합회 임직원들은 “한센인(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 받은 한센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한센인 마음치유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센터는 소외계층의 삶과 생활을 보듬어 온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면담을 통해 한센 역사의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였다”며 “앞으로 면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총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센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 한센병(인) 편견해소를 위한 라디오 CM, SNS 채널에 홍보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병) 편견해소 라디오 CM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SNS를 활용한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라디오 홍보용으로만 국한되어 사용해 오던 CM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한센인(병) 편견해소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 총연합회는 '언택트 홍보' 트렌드에 맞춰 홍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글로 보는 한센인(병) 편견해소 라디오 CM

● A : 국민 의학상식 퀴즈!

나균 감염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유전되지 않는 피부병은 무엇일까요?

B : 힌트 좀 더 주세요!

A :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균을 발견하였고, 현재 완치가 가능합니다.

B : 아! 한센병입니다!

A : 한센병 바로 알기, 질병관리청과 한국한센총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센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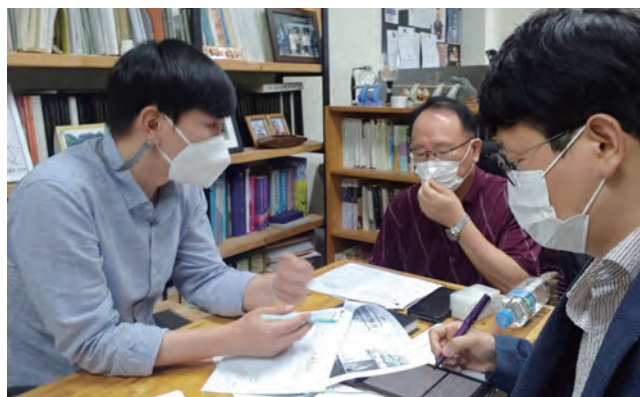


이길용 총연합회회장은 지난 7월 12일(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안과 미래 한센인 복지와 인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통찰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증가, 앞으로 한센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한 열띤 대화를 나눴다.

## 전북대 최원규 교수와 한센사업 발전 방향 논의



▲ 박푸름 총연합회 차장, 최원규 교수, 정태영 총연합회 과장(왼쪽부터)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7월 22일(목)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사업 자문 및 컨설팅과 함께 총연합회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리 총연합회 직원들은 최원규 교수에게 주요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한센 현황 및 주무부처 승격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최원규 교수는 한센사업을 한센인, 노인, 농어민, 장애인, 여성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한센사업 추진을 위한 한센인 관련 논문 자료(한센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2008년))를 총연합회에 제공하고, 한센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업을 제언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핵심 사업 발굴 및 주요 현안 사업 자문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유관 기관과 소통하며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길용 총연합회장, 영신마을 집중호우 피해 위로 방문

이길용 총연합회장이 지난 7월 27일(화) 영신마을(경남 하동군 소재, 이덕구 대표) 집중호우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경남을 찾았다.

총연합회 임직원과 함께 방문한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이덕구 대표 및 마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향후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농경지 등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호우 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평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순찰을 하던 정일동 새마을지도자가 이번 집중호우로 크게 다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술이 잘 돼서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실외**

- 상시 마스크 착용
-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질병관리청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1-2022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
| 만 75세 이상 (1946.12.31. 이전 출생자)          | 2021.10.12.(화) ~ 2022.2.28.(월) |
| 만 70~74세 (1947.1.1. ~ 1951.12.31. 출생자) | 2021.10.18.(월) ~ 2022.2.28.(월) |
| 만 65~69세 (1952.1.1. ~ 1956.12.31. 출생자) | 2021.10.21.(목) ~ 2022.2.28.(월) |

**●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5  
15~30분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 도우미 바로가기**



안드로이드/폰용  
QR코드



아이폰용  
QR코드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 (사)한국한센총연합회를 카카오톡에서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속의#총연합회#검색후  
#친구추가하자#다양한혜택이있다



### 혜택 알아보기



한국한센총연합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총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총연합회 소식과 다양한 생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좋습니다! 또 무슨 혜택이 있나요?



1:1 채팅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센인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건의와 문의 등 무엇이든지 OK!



이런 혜택을 지금 알았다니! 당장 추가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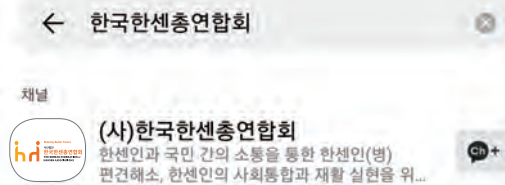


## 채널 추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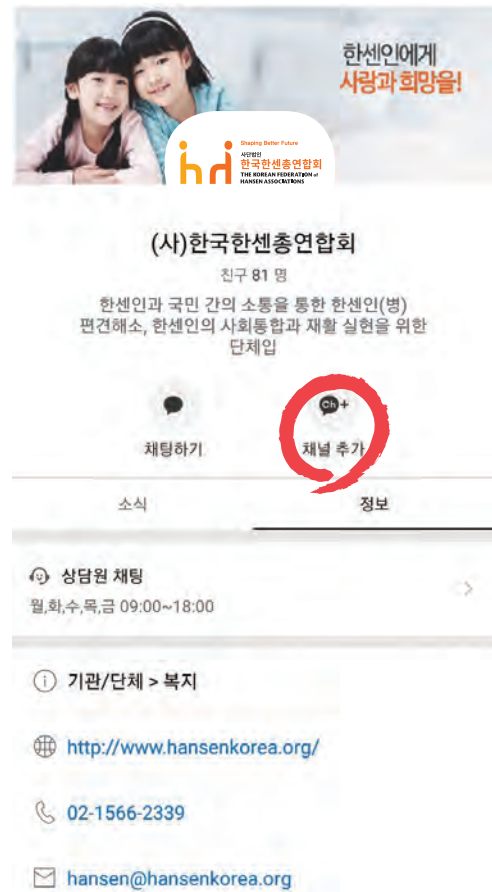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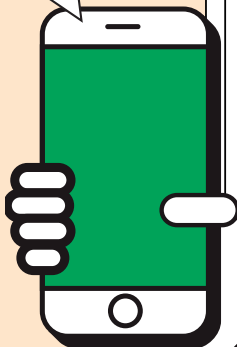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경기지부 지부장 이·취임식



▲ 이·취임식 현장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 경기지부 산하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은 취임 신임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소개, 감사패 및 임명장 전달, 이·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최광현 신임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1년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활동해주신 이영운 전임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경기지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센 가족들과 힘을 모아 더욱 봉사하고 발전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우리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이 지난 6월 29일(화)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되어 이영운 지부장의 뒤를 이어 최광현 신임 지부장이 취임했다.



▲ 임명장 전달식



# 영신마을 호우피해에 숨은 영웅들

## 고령의 한센인들의 안전 챙기다 부상입어



경남 하동군 일대에는 지난 7월 5일부터 7일 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60세대 95명이 거주하는 영신마을(대표 이덕구, 하동군 적량면 소재)도 집중호우 피해를 빚겨가지 못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 7일, 영신마을 위 축사 주변에서 토사가 유출돼 만약의 사태

태를 대비해 산림과 인접한 주민 23명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분산 대피시키는 등 이덕구 대표와 정일동 새마을지도자는 집중호우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축사 주변의 1차 토사유출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2차 유출이 일어나면서 정일동 새마을지도자가 토사에 밀리면서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 주위 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당한 정일동 새마을지도자는 진주 세란병원에서 치료를 이어오다 지난 7월 14일 수술을 받았다.

정일동 새마을지도자의 살신성인 정신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양호 하동군장학재단 이사장이 금일봉을 내놓기도 하며, 지역 뉴스에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집중호우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마을과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일동 새마을지도자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진한 감동을 받았다.



사진 출처 : 서경방송



## 봉사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양지해피하우스'

지난 6월 한센인 정착마을인 양지마을(경남 김해시 생림면 소재, 나규상 대표)의 '양지해피하우스'가 김해시, 기업, 자원봉사단체의 손길로 보수를 실시했다.

'양지해피하우스'는 2007년 준공되어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을 갖춰 당시 46세대 76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양지해피하우스'는 김해시자원봉사센터와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울타리가족봉사단4기, KT 김해지사 사랑의봉사단, 한국전력 김해지점사회봉사단, 김해소방서, 정우디자인, 일광창호, 김해제일라이온스클럽, LG전자 김해중앙프라자,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김해지회 등 다양한 봉사단체가 협력해 각 단체별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KT김해지사 사랑의 봉사단의 경우 '양지해피하우스'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600만원)을 지원함과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경남 지역 한센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고 있는 박은희 김해시의원이 전 직장 김해시자원봉사센터 근무 시절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13여 년간 양지마을과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3년 전 김해시의회에 입문하면서 '한센인 사업'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여서 5분 자유발언 등 김해

시보건소와 한센인을 위한 예산 건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조례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초, 박은희 김해시의원과 김진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장은 '양지해피하우스' 보수 공사를 위해 '양지해피하우스'를 방문했다. 13년 전 함께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단체명이 적혀 있는 낡은 비석이 그들을 반겼다. 세월 속에 주민들이 많이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도 접해 안타까움도 컸다고 한다.

세월 속에 양지해피하우스 곳곳은 노후 되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장과 박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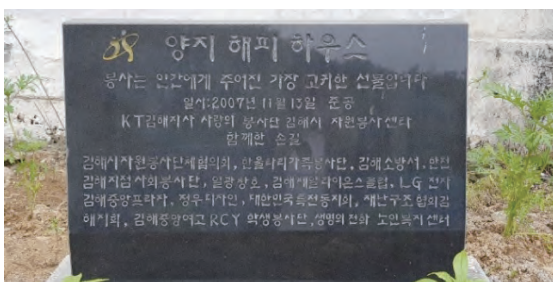
김해시의원은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새롭게 화단으로 보수했으며, 수목들이 너무 자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마을회관을 덮칠 것 같아 걱정된다는 나규상 대표님의 민원을 공원녹지과에 적극 건의하여



▲ 양지해피하우스를 방문한 박은희 김해시의원과 김진현 공원녹지과장



▲ 새로 교체된 태극기





가로수팀에서 수목 전정 작업을 통해 드디어 맑은 하늘 사이로 성당 종탑을 드러나 보이게 했다. 또한 마을 회관 앞 낡아 찢어져 버린 태극기는 생림면사무소(면장 이정열)에서 교체해주었다.



▲ 수목에 가려진 성당 종탑



▲ 수목 전정 작업 후 보이는 성당 종탑

더불어 김진현 공원녹지과장은 화단보수 및 수목 전정 작업하러 갔다가 양지해피하우스 이·미용실 내부 수도배관이 노후되어 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원인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이·미용실 내부 수도배관을 점검하는 김진현 공원녹지과장

지난 6월 30일 김해시마스터가드너(회장 옥정표) 봉사단체는 양지해피하우스 화단정리(성모상 앞 줄장비와 아이비 전지,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김해 시도시개발공사 사회공헌위원회 주관으로 양지해피하우스 시설 개보수, 실내 전등 교체, 전기시설 누전 차단기 교체, 이·미용실 누수방지 공사, 순간온수기설치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화단을 가꾸고 있는 김해시마스터가드너 봉사단체와 성모상

이처럼 세월이 지난 노후된 양지해피하우스 시설 보수를 위해 김해시,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에 한센인들은 오늘도 큰 힘을 얻는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현장점검



(사)한국한센복지협회

## 진주진료지소 새단장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울산·경남지부 진주진료지소의 성공적인 리모델링과 이에 헌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김인권 회장, 윤영득 사무총장, 본·지부 본부장 7명 등은 6월 11일(금) 울산·경남지부 진주진료지소를 방문, 새단장을 마친 진주진료지소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진료지소 직원들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생각을 바꾸면 사랑입니다”



**전현희** 엄지와 검지가 나란히 있으면 수평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엄지가 움직이면 하트가 만들어 집니다. 한센인을 바라보는 과거, 현재의 시선을 엄지와 검지 수평선으로 표현해 편견과 거리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반들의 생각과 시선을 표현하였고, 검지가 움직이면 하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센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역사속 인물

##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다간 손양원 목사



‘한센인의 아버지’, ‘사랑의 원자탄’으로 추모되는 산돌 손양원 목사(1902 ~ 1950). 손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 투쟁한 목사이자 항일독립운동가이다. 1939년부터 애양원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구호사업과 전도활동에 전력하였으며, 한국전쟁 중 죽음을 맞이하였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애양원 한센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기에 그는 피난을 하지 못했으며, 한센인의 괴고름 나는 손을 덥석 잡고 그들의 몸을 거리낌 없이 쓸어주고 주물러 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한센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 주었다. 그의 목회 인생은 오로지 한센인들과 함께였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을 정도로 경이로운 인물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8월 15일 국가독립유공자로 선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 한센인들의 등불이자 친구

손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서 아버지 손종일과 어머니 김은수 사이의 삼형제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연준이고 호는 산돌이다. 남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전한 전도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1813 ~ 1873)을 사모하여 자신의 호로 삼았다고 한다.

1903년부터 부모를 따라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손목사는 1913년 칠원공립보통학교에 입학, 3학년 때 선교사 맥레이(Macrae, F.J.L.)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조회 때 동방요배를 강요당하자 우상숭배라고 거절하여 퇴학당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선교사가 강력히 항의하여 복교되었으며, 1917년 7월 졸업하였다. 손목사는 1918년 2월 서울로 올라가 신문 배달과 만두장사를 하면서 중동중학교에 다녔다. 1919년 3·1운동에 연루되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자퇴하고 고향에 내려왔다. 1920년 봄, 부친이 풀려나자 그는 1921년 일본으

로 건너가 스가모중학교 야간부에 입학, 졸업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10월 칠원읍교회의 집사로 파선되었다. 이듬해 1월에는 정쾌조와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었다.

1924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성결교회의 나카다 주이치 목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때 그는 조국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그 해 10월 귀국해 부산에 있던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했다. 부산 감만동 상애원이라는 한센인 요양소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역을 시작한 손목사는 ‘손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다고 전한다. 이후 손목사는 10여 년간 밀양 수산교회, 울산 방어진교회, 남창교회, 부산 남부민동교회, 양산 원동교회 등을 개척 설립하였다. 그는 1935년 4월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에 열중하면서 능라도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했다. 신학교에서도 손목사는 뜨거운 기도생활과 성경 읽기로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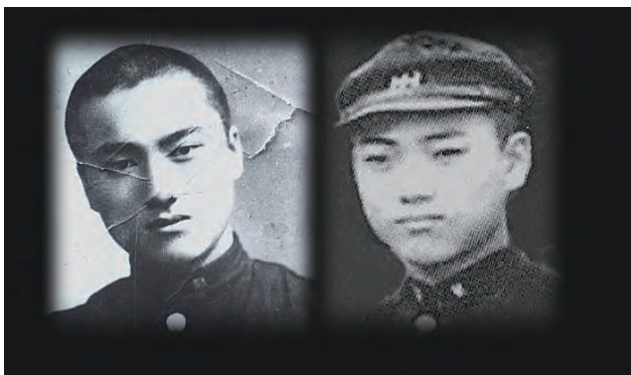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다음 부산지방 시찰회 강도사로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했다. 이때도 그는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설교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당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경남노회는 그에게 목사 안수조차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전도사 자격도 박탈하였다. 1939년 7월 15일 그는 신학교 동창인 김형모 목사의 추천으로 전남 여천군 율촌면 산풍리에 있는 한센인 요양원 애양원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한센인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름도 ‘양원’으로 고쳤고 그의 부인도 ‘양순’으로 개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한센인과 일반인을 가르던 철조망부터 걷어냈다. 한센인들의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 냄새가 심하자 “무섭지 않게 하소서. 냄새를 못 느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들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냈다.

그는 버림받은 한센인들의 몸을 씻기고 상처 난 손과 발을 싸매주었으며, 때로는 입으로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다. 이처럼 언행이 일치된 그의 사랑에 넘친 신앙 실천은 애양원의 한센인들을 감동시켰다. 거듭되는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던 손목사는 마침내 1940년 9월 25일 연행돼 여수경찰서에 미결수로 감금됐다. 1941년 7월 광주구치소로 이감된 그는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1943년 5월 출옥될 예정이었으나 전향해야 한다는 검사 위협

에 “당신은 전향이 문제지만, 내게는 신앙이 문제”라면서 끝내 거부하였다. 결국 경성 구금소로 넘겨졌다가 1943년 10월 청주형무소로 이감되었다.

해방이 되어 1945년 8월 17일 6년 만에 출옥하자 그는 애양원교회에서 다시 한센인들 목회에 혼



▲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신의 힘을 쏟았다. 그는 1946년 3월 경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새로운 목회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고, 당시 반란군인 안재선(안경선 목사의 아버지)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란 이유로 그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하였다.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삼켰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하여 결국 그를 살려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하였다.

10월 27일 두 아들 장례식에서 그는 ‘아홉 가지 감사’라는 설교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 자식들이 총살당하면서도 전도했음에 감사, 유학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더욱 감사,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동료와 신도들의 피난 권유를 거절하고 행동이 부자유한 한센인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김구 선생은 그에게 크게 감동하며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라 말했다고 한다.



▲ 김구 선생(왼쪽에서 세 번째)과 손양원 목사(왼쪽에서 두 번째)



##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의 사상과 정신을 찾아

손양원기념관은 손양원 목사의 원수사랑 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안 칠원교회에서 제 공한 손양원목사의 생가 터 부지 3,656㎡에 경상남도과 함안군과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에서 58억의 예산을 투입해 2015년 9월 30일에 건립되었다. 2018년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건축상 수상을 한 기념관은 손양원 목사의 복원 생가(30㎡)와 전시장, 영상실, 카페,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기념관은 손양원 목사의 일생 가운데에서 드러난 “나라사랑”, “사람사랑”, “하늘사랑”의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손양원 목사 순교 신앙과 애국정신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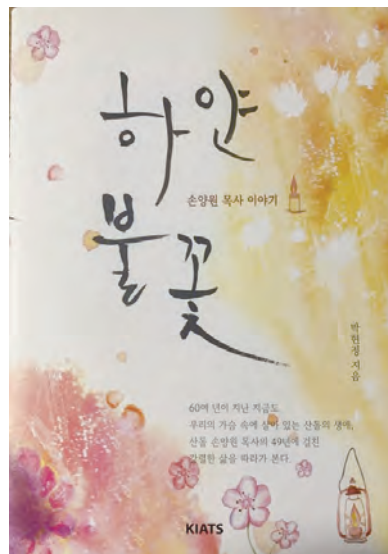


▲ 초가로 복원된 생가 뒷마루에 손양원 목사가 앉아 책 읽는 모습의 동상 뒤로 손양원기념관(함안군 소재)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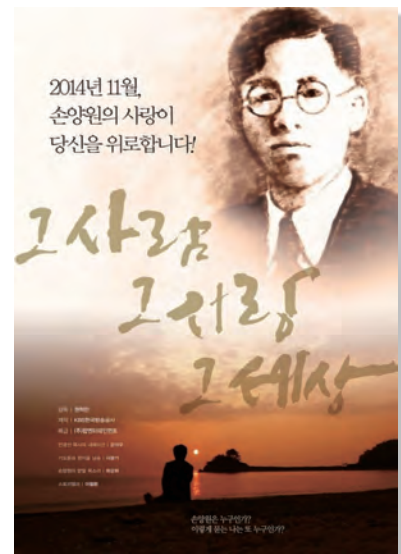
70여 년이 지난 지금 손양원 목사의 49년에 걸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책과 영화가 있다. 책과 영화를 통해 손목사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의 인간적 고뇌와 슬픔을 엿볼 수 있다.



안용준 지음 | 성광문화사  
| 2009년 12월 10일 출간



박현정 지음 | 김명준(영역) 옮김 | KIATS(키아츠)  
| 2013년 10월 31일 출간



다큐멘터리 | THE 픽처스 배급 | 감독 권혁만  
| 82분 | 2014년 11월 20일 개봉

##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손양원 목사님 순교신앙을 기억하며

오늘 여기에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남은 자의 아픔이 되겠습니다

버림받은 한센병자들  
아픔으로 쏟아내는 피고름  
사랑의 입으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인 동신 두 아들  
공산당 총에 쓰러져 순교제물되어 돌아온 날  
자식 하나 순교자로 바침도 영광인데  
둘이나 받으시니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끼칠  
두 아들 살해한 그 학생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메마른 이 땅에 터지고  
순교십자가 지고 서서  
기뻐 하늘 보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한 하늘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남은 자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 순교시비 中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뒤쪽에 세워져 있는 손양원 목사 순교시비

## 고흥군,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6월 30일(수)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로 간호부문에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과 봉사부문에 박희성 前서석고 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회를 맞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간호부와 봉사부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1인을 선정, 상장과 함께 시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 강선화 씨

▲ 박희성 씨

간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은 2012년부터 미국 아리조나 한인간호사 협회장을 맡으며, 한인대상 독감 백신접

종 이벤트 추진 및 미국 내 소수민족 의료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봉사부문 박희성 前 서석고 교장은 광주광역시 서석고에서 38년간 교직에 재직하며 학생 봉사단과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설립해 22년 동안 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한혈증 기증운동(19년), 소록도 봉사체험의 날 운영(20년), 필리핀 해외 봉사(4년) 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고흥군 정하용 부군수는 “우리군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봉사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였고, ‘(사)마리안느와 마가렛’과 함께 나눔연수원 운영 등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올해 처음으로 봉사대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의 봉사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두 분의 평생에 걸친 봉사정신에 걸맞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2021년 3월부터 45일간 전국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대한간호협회, 지역대학교 등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군의원, 언론인 등으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염원을 담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고흥군





##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 백서 ·곽형수 남포미술관장 회고록 출간

"소록도 주민과 아름다운 동행, 가장 큰 보람"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사진)이 백서와 함께 회고록을 출간했다.

특히 시골의 사립미술관에서 '백서'를 만드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눈길을 끈다. 남포미술관을 찾았던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도 '백서'를 받고는 "아카이브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시골 미술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15년 전 선친 곽귀동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운영하던 고흥 영남중학교가 폐교되며, 학교를 리모델링해 미술관으로 개관한 곽 관장은 그동안 수준 높은 전시 기획과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다.

남포 곽귀동 선생은 척박한 환경에 놓여 배움의 길을 찾지 못하던 고향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동

기를 마련해주고자 자신의 재산을 쾌척하여 1965년 고등국민학교 형태의 배움터를 마련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67년 학교법인 팔영학원 점암중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척척산중으로 도로는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 개인의 힘으로 중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 할 일이라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남포 선생은 여수에서 뱃길을 이용해 건축자재를 실어왔고 포구에서 기다리던 인부들이 지게 등짐으로 산길을 걸어 자재를 운반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세운 점암중학교는 이후 행정구역이 영남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9년 영남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고향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 하였던 선친의 숭고한 육영정신을 이어 받은 아들 곽형수 관장이 2대째 육영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3년 2월 학교법인 팔영학원이 해산됨에 따라 영남중학교는 36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남포미술관 설립자 곽형수 관장은 낙후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었던 선친의 공덕을 계승, 실천하는 정신으로 선친의 아호를 빌어 미술관 명칭을 남포로 정하였고 폐교된 학교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면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1960년대 어렵던 시절 첩첩산중에 사립중학교를 세워 인재를 발굴해 보냈던 선친의 무모하지만 아름다웠던 꿈이 척박한 지역문화 환경을 풍요롭게 바꾸고자 미술관을 설립한 아들의 아름다운 도전으로 대물림 된 것이다.

2005년 2월 19일 전남 제1호 등록, 1종 미술관으로 개관한 남포미술관은 4개의 전시장을 비롯하여 공연장, 창작교육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팔영산 자락 아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흥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 틈틈이 메모했던 기록을 정리해 출간한 회고록 '무모했던 꿈 열정과 도전으로 이루다'는 미술관을 운영해 오며 느낀 소회와 상대적으로 희생해 왔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곽형수 관장은 "회고록을 정리하며 미술관으로 인해 만난 많은 사람들의 귀한 삶의 향기와 자신을 되돌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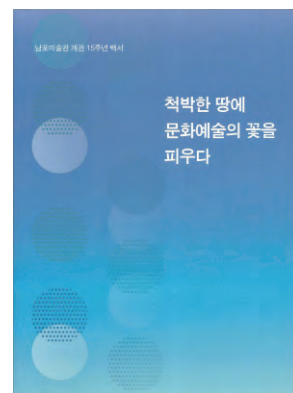
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15년에 걸쳐 이어온 소록도 주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보람과 가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소록도 현지에서 열린 첫 기획전 '아기사슴, 희망을 나누다'를 시작으로 소록도 중증환자들이 직접 참여한 '소록도, 행복한 웃음으로 피어나다'전은 큰 감동을 전했다. 그 중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한 소록도 옹벽 벽화 프로젝트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사람들'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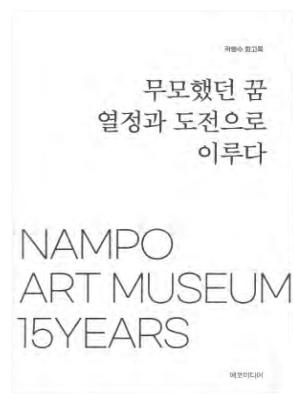
소록도 옹벽 벽화는 과거-현재-미래로 구분하여, '과거' 구간은 인권 유린으로 상처입은 소록도 주민의 영혼을 피 흘리는 새끼 사슴으로 표현했고, '현재' 구간에는 소록도 주민, 국립소록도병원 임직원, 자원봉사자, 남포미술관계자, 벽화제작에 참여한 재능기부 작가 등 450여 명의 얼굴을 새기고, '미래' 구간은 한센병이 사라진 소록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형상화했다.

'척박한 땅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15년간 미술관이 걸어온 길이 325쪽 분량에는 사진과 함께 미술관 소개, 전시, 교육, 미술관 음악회, 찾아가는 미술관 등 다양한 자료가 실렸다.

자료 제공 : 남포미술관



▲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 백서



▲ 곽형수 관장 회고록

## 소록도 옹벽 벽화





## ‘소록도 해록예술회 순회전’



▲ 소록도 해록예술회 회원들

소록도 해록예술회(회장 김기춘)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박물관 2층 로비에서 작품전 “희망의 속삭임”을 개최한다.

해록예술회는 2016년 발족한 이래 지난 5년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매년 뜻깊은 전시를 개최해 온 예술 단체로, 이번 작품전은 고흥군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전시 현장

이번 작품전은 해록예술회원들이 모진 병마와 싸우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위안을 삼았던



던 삶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담아 예술로 승화한 작가 14명의 작품 30여점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한편, 2019년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과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과의 전남 동부권 국공립, 대학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역민과 함께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세 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전시에 이어 2차 전시는 순천향대학교박물관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 옛 친구

신재문 영락마을 대표

한 번 헤어진 옛 친구  
다시 만나자 기약했건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 보고파 그리워지네

타향에서 맺어진 외로운 우정  
기구한 운명 함께 누리고  
누구와도 말 못 할 사연 친구와 나누며  
한 많은 세상에 힘이 되었네

오랜 우정 오래도록 남기고 싶은데  
세월 따라 함께 흘러갔다니  
슬픔과 공허함에 마음 아파와  
그 추억 옛 추억이 되고 말았네

가슴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우정  
웃고 울던 그 시절 그리며  
되돌릴 수 없는 세월 아쉬웁구나

**작품 해설** 필자(신재문 대표)는 한센병을 극복하는 힘든 과정에서 고난을 함께 이겨낸 옛 친구와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내포시켰다.

# 매미의 일생(一生)

김 종 윤(익산마을)

일생이란? 살아있는 동안, 나서 죽을 때까지의 평생 일  
기란 뜻이다. 매미는 하루 종일 목청이 터져라하고 노래  
를 부른다. 원 없이 노래를 부르고 짧은 시간에 사라져  
가는 게 매미의 일생(一生)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매미에게는 엄청난 시간이다.

매미가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수시로 관찰을 하  
여 보았다. 매미는 이슬만 먹고 산다더니 사실이었다. 매  
미의 일생은 참으로 경이롭고 동시에 애잔하다. 짹짹기  
후에 매미 암컷은 나무의 줄기에 알을 낳는다. 겨울에 난  
알은 유충으로 깨어난다. 깨어난 유충은 나무를 타고 내  
려와 땅속으로 들어가 나무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으며  
오랜 기간 동안 성충이 되기를 기다린다. 성충이 되기까  
지는 보통 7년이 걸리지만 종류에 따라 5년, 13년, 17년  
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살던 유  
충은 성충(成)이 되어 여름밤 드디어 땅위로 나와 매미로  
우화(羽化)한다. 이후 매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여  
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 짧은 시간에 짹을 찾아 짹짹기를  
한 후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 수컷 매  
미들의 짹을 찾기 위한 노래 소리가 처절한 모양이다.

우리 선조님들은 매미는 인간에게 일체의 해를 끼치지  
않는 덕충(德蟲)으로 여겼다. 매미의 5덕(五德)인 문(文),  
청(靑), 염(廉), 검(儉), 신(信)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머  
리 모양이 선비가 쓰는 관(冠)을 닮은 문덕(文德), 이슬  
만 먹고 사는 청덕(淸德), 곡식과 채소를 해치지 않는 염  
덕(廉德), 집을 짓지 않는 검덕(儉德), 때되면 왔다가 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줄을 아는 신덕(信德)을 갖추고 있  
다고 여겼다.

매미가 인간에게 끼치는 유일한 해악은 소음일 것이  
다. 최고 100데시벨(dB)에 달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엄청난 소음공해다. 집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확  
성기 소음 기준치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인 점  
을 고려한다면 매미의 울음소리는 공해임에 틀림없다.  
지난 1990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매미 떼가 하도 울어서  
중요한 음악 행사가 취소되기까지 했다.

매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것도 아니다.  
매미는 낮에만 울고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도시  
의 매미들이 밤에도 우는 것은 밝은 불빛 때문에 낮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밤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잠을 설치  
기도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놈의 매미들은 잠  
도 안 자느냐?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울부짖고 야단이나?  
그러나 매미의 사정을 알고 보면 결코 투정 부릴 일이 아  
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오랜 세월 지나다가 겨우 10여일 세  
상구경을 하고 이 땅을 떠난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땅속  
에 살다가 약 10여 일 동안 짹을 찾아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 알을 낳은 다음에는 속절없이 죽어 가야 한  
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애절하겠는가? 매미의 울  
음소리는 매미의 기가 막힌 일생을 토로하는 삶의 노래  
요 부르짖음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 인생도 인생의 4분의 1  
은 성장하면서 살고 4분의 3은 늙어 가면서 보낸다는 말  
이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아름다운 귀  
로(歸路)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김 흥 수(고운마을)

대한민국은 자동차 4대 강국이다. 한국은 조선(造船) 1등 강국이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한국에서 제조한 선박이란다. 한국은 반도체 1등 국가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다. 한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씩 있고,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전기 밥솥 1등 국가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한국제품이다. 가전제품을 싹쓸이 해버렸다.

한국은 1970년도에 고속도로가 1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나 된다. 한국은 세계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을 하였다.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이란다. 서울지하철이 세계 1등이고, 한국 GS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하여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간 들여온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3대 타이어 회사이며 매년 1억 개를 생산한다.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전투기 40여대를 수출했다. 원자로도 수출한다. 아랍에미리트에 20조원짜리 원자로를 수출하였다.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원, 라면은 1년에 6천억원(신라면) 수출하고, 오토바이 헬멧 1등 국가! 지문인식 기도 1등, 도어락 1등, 네비게이션 1등, CCTV 1등, LED 조명 1등,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되고 앞으로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난다고 한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를 제쳤고 영국도 제쳤다. 이런 것을 봐도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1천대 중에 90대는 한국 자동차란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다. 전 세계 168개 국가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서 앞으로 15년 후인 2036년이 되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유명한 예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갑시다”**

**작품 해설** 한국인 모두가 만들어낸 K-방역의 성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을 보면, 필자(김흥수)는 한국이 매우 자랑스롭다. K-방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여러 분야를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글에 담아냈다.



# 치매예방교육을 마치고

이희우(여천마을 대표)

한국한센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한 치매예방교육을 7월 8일, 오늘로써 마친다. 15회 계속 되었기에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교육 기획 차원으로 오시고 교육 시작 때도 오신 한국한센총연합회 본회와 전남지부의 수고와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강사로 수고하신 주순자 대표님과 김길동 강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교육 기간 중 농촌마을의 특성상 수시로 해야 할 밭일과 농작물 관리, 1·2차 백신 접종, 그리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야 할 사정 등 때문에 12명 전원이 매시간 교육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마을은 1962년 8월에 조성된 마을로서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초 110여명의 주민이 살았지만 지금은 22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을을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린다. 치매는 노인이 되어 가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며 내 가족이나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관심이 필요하던 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강사님들의 열성적인 강의로 그림, 노래, 운동, 율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활동하게 하였고 모두가 하나같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했던 것이 대견스럽기도 하였다. 특별히 정착마을 한센인과 주민이 교육받으며 친목을 도모한 것도 소중한 기회요, 시간이었음을 감사한다. 교육을 받으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건전

한 생각, 아름다운 이웃사랑, 손과 발 그리고 몸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가 치매예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총연합회와 강사님들에게 더욱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12분마다 1명씩 치매발병의 사례를 발표한 학자들이 있다고 한다. 치매예방교육도 중요하고 치매 조기 검진 치료들을 통하여 치매 발병률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40년 후 치매 발병률을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학설도 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아왔다. 치매 환자를 돌볼 여유가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 치매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혹시라도 요양원이나 치매 관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웬만한 중산층이 아니고서는 병원비 감당도 어려운 일이란 것을 우리는 TV, 신문,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보아왔기에 이번 치매 예방교육은 참으로 소중한 기회요, 필요한 교육이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련해주신 질병관리청,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관심과 사랑, 교육으로 수고해주신 대표님과 강사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와중에서도 항상 건강과 평강과 형통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 드리며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치매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도를 드린다.



**작품 해설** 5월 20일부터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 여천마을(전남 영암군) 이희우 대표가 교육을 수강하고 난 뒤 교육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점을 진솔하게 담아낸 소감문이다.



#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장애·아동·여성·범죄피해지원 분야와 관련해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며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 도움을 주는 김예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 변호사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불편과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안다. 그는 2017년 친모 동거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아동을 변호할 당시 자신의 의안을 직접 빼 보인 뒤 “의안을 바꿔 넣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일화로 유명하다. 법정에 셋째 아이와 함께 들어가 수유를 하면서 변론을 한 일화 역시 유명하다.

그의 공로는 인정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1회 광정숙 인권상 등을 받았고, 2019년 장애 인권을 다룬 책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를 펴내, 사람들이 장애인 인권을 멀고 낯선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지는 공익을 쫓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대변하며 그 대가로 더불어 사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 변호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독자들에게 변호사님과 장애인권법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김예원입니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분들,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본인 스스로 도저히 권리 옹호가 되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수임료를 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사실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적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권에 대해 감수성이 높은 성장기를 겪은 것은 아니에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업연수원을 마치고,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공익변호사로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너무 말 안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21세기에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공익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저의 모난 성격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거 같아요. 둥글둥글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웃음)

**Q**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을 해오시면서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A**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건 자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피해자와 소통할 때 이 피해자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상담 방식을 통해 여러 가지 새로움을 경험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할 때가 기억에 남죠. 피해자와의 상담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알아왔던 사람처럼, 친구처럼 편하게 소통하다보면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게 돼요. 학대를 당했거나 자기표현을 할 기회 없었던 분들이 저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이럴 수도 있구나”를 느끼며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좋은 거 같아요.

**Q** 한센인분들은 한센병이 불치병이란 근거 없는 낙인 탓에 사회로부터 멸시와 배제를 받았습니다. 사회 내에는 아직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남아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센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사회적 관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어떻게 보면 한센인분들은 범주화할 수 있는 피해자이잖아요. 범주화할 수 있는 피해자를 대할 때, 행정이나 여러 관점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만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언어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런 방식은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요. 교복 값 20만원이 없어서 자퇴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담임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아?”라고 말하죠. 근데 학생은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미 학생은 위축되고 무기력해져 있어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왜 자살해? 왜 그러고 살아? 기초수급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은 도저히 거기에 스스로 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분들은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피해자의 마음속에 억압돼 있는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자신이 응당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분류화하고 범주화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죠. 일반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호 등한 인격체를 정의하는 본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를 명심한다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이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의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장애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中 -

**Q** 아동인권 주제로 언론에서 변호사님을 자주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의 자녀 교육법도 궁금합니다.

**A** 사실 아동인권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대하지는 않아요. 이 질문에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교육 가치관이 달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언어, 아이와 소통할 때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 아이가 원피스를 올려 속옷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대부분의 엄마는 당연히 화내겠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가 나기는 하지만, 먼저 아이에게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요. 알려주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Q** 평소 존경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A** 저는 묵묵하게 자기 삶을 반복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정말 힘든 일을 묵묵하게 하시며 살아내시는 분들이요. 세상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속되는 거 같아요. 어느날 문득 잔다르크처럼 활동하는 것 말고요. (웃음) 힘들지만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런 일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Q**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고, 취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살림과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요. 소소하게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을 느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어요.

**Q** 변호사님의 인생 신조가 있으신가요?

**A** '신조'라는 말이 엄청 어려운거 같아요. "평범함에 감사하며 살자. 한치 앞도 모르는 삶에서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가족들이 무사한 거에 감사하자. 지금 이 순간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을 하자"는 것이 인생 신조예요. 제가 대리하는 사건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일상이 잘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이루고픈 소망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 하는 일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바람 들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웃음) 그게 계획이고 제 꿈입니다.

**Q** 끝으로 한센인 어르신들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A** 응원이라기보다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연대가 가장 중요하죠. 함께 더불어 가는 누군가 함께 있음을 느끼시는 따뜻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과 관심은 한센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입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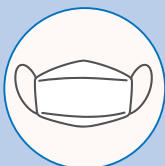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거리를  
**확** 띄워요!



어디서나  
**확** 써줘요!



비누로  
**확** 씻어요!



옷소매로  
**확** 막아요!



밀폐·밀집·밀접  
**확** 피해요!



감염병 궁금할 땐  
**확** 전화해요!

## 정착마을 풍경

정착마을을 걷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청원마을.

오송균 외 5명이 현 마을소재에 외딴집 2채를 장만하고 새마을 마을(6세대)로 출범하여 1968년 9월에 마을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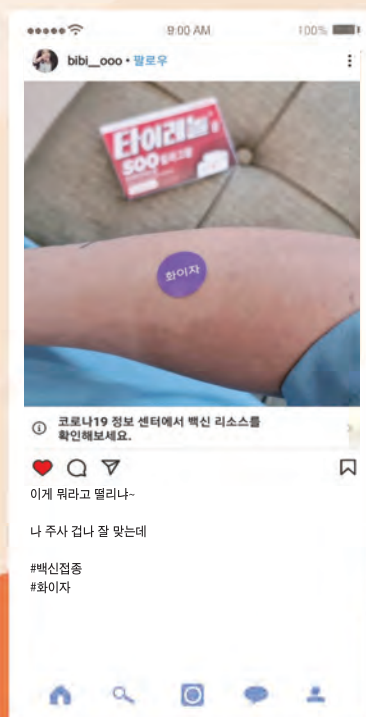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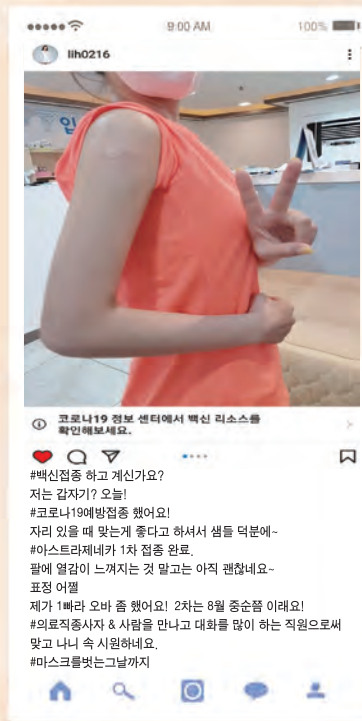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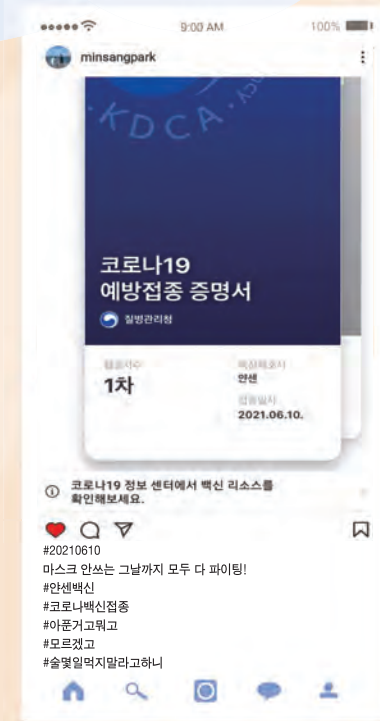
하늘에 수놓은 멋진 구름...  
초록 들판에 수놓은 하얀 꽃들...  
그 위에 자리 잡은 마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 # SNS

## SNS 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샷 #우리 함께 이겨내요





#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한센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 방법** 계좌 송금 및 물품 기부를 위한 문의 또는 홈페이지 후원접수
- **후원 기간** 상시
- **후원 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사)한국한센총연합회  
※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 Q** 후원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Tel. 02-1566-2339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후원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www.hansenkorea.org](http://www.hansenkorea.org) 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Q** 카카오톡으로 문의 가능한가요?  
**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아이디 : 한국한센총연합회)

# 커피박 알뜰하게 활용하기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22억 5,000만 잔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생두와 원두 그리고 커피 조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2012년 11만 5000톤에서 2019년 17만 6000톤으로 증가했다. 이때 원두의 0.2%만이 커피를 내리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99.8%는 모두 커피박으로 버려진다. 아메리카노 한 잔당 14g 정도이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커피 찌꺼기’로 불린다. 커피박의 처리 비용 역시 성장하는 커피 시장만큼이나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박을 매립·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피박을 잘 활용하면 생활 속 지혜가 되고,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의 재산이 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커피박 활용 방법을 준비했다.

한눈에 보는 커피 통계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

생두와 원두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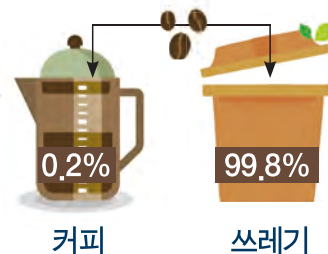


2012년: 105,612톤  
2019년: 167,578톤

커피박 발생 추정량



버려지는 커피박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커피박 활용법 10가지

① 탈취/제습/방향제

커피박은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바구니, 그릇, 양말, 스타킹, 핸드드립 후 남은 여과지, 거즈 등에 넣은 후 냉장고, 신발장, 쓰레기통, 차량, 옷장 등의 장소에 두면 악취나 나쁜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② 목은 때/기름기 제거

싱크대나 세면대에는 금세 기름때와 같이 미끌미끌한 때가 생기게 마련이다. 커피박을 면천에 담아 문지르면 어렵지 않게 목은 때를 제거할 수 있다.

③ 벌레 퇴치

쓰레기 통 근처, 개수대 등 벌레가 생기기 쉬운 장소에 커피박을 뿌려두면 냄새제거와 함께 개미와 같은 벌레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④ 각질제거

커피박은 미세하게 각진 형태를 하고 있어 피부에 쌓여 있는 각질과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원두 특유의 기름성분이 피부를 매끈하게 가꾸어 준다. 이는 원두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슬리밍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세안이나 입욕하실 때 커피박을 넣고 마사지하듯 살살 문질러 주지만 하면 된다.

⑤ 천연 염색제

염색용으로는 커피박 보다는 오래되거나 먹지 않는 원두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부직포 또는 거즈에 원두가루를 넣고 물에 끓이면 진하게 원두커피가 우려난다. 이를 식혀 두었다가 옷감을 넣어 약 1~2시간 정도 두면 자연스러운 커피색으로 염색된다. 매염제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다.

⑥ 팩

팩으로는 커피박 1큰술 + 흑설탕 1큰술 + 밀가루 3큰술 + 물 3큰술의 비율로 섞으면 천연 팩으로 좋다. 약 10분 정도 발랐다가 미온수로 씻어 주면 된다.  
(단!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손목 부위에 테스트를 한 후 사용!)

⑦ 광택제/가구 흠집 제거

원두에는 특유의 기름 성분이 있다. 이 기름 성분은 커피박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커피박을 헝겊에 싼 후 마루나 가구를 문질러 주면 살짝 광택효과를 볼 수 있다. 커피박을 끓여 진하게 우려낸 뒤 솜으로 가구를 살살 문혀주면 흠집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다.

⑧ 녹 방지

원두 특유의 기름 성분이 녹을 천연으로 방지해 주기도 한다. 칼이나 비늘 등 녹이 슬 수 있는 곳을 문질러 주거나 함께 담아 두면 더 오랫동안 녹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⑨ 요리(비린내 제거)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육류나 생선 요리를 먹기가 부담스럽다. 요리하실 때 소량만 뿌려주거나 넣어 주면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요리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⑩ 천연 비료

커피박에는 질소와 인이 풍부해서 텃밭이나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비료로 쓸 수 있다. 단, 막 커피를 내린 커피박을 바로 뿌려서는 안되고, 휴과 낙엽, 톱밥 등과 혼합해 발효를 시켜 써야 한다. 계절에 따라 2주 ~ 2달 정도 숙성하면 지렁이 등 유익한 생물이 살기 좋은 흙이 된다. 커피는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수국, 진달래, 장미 등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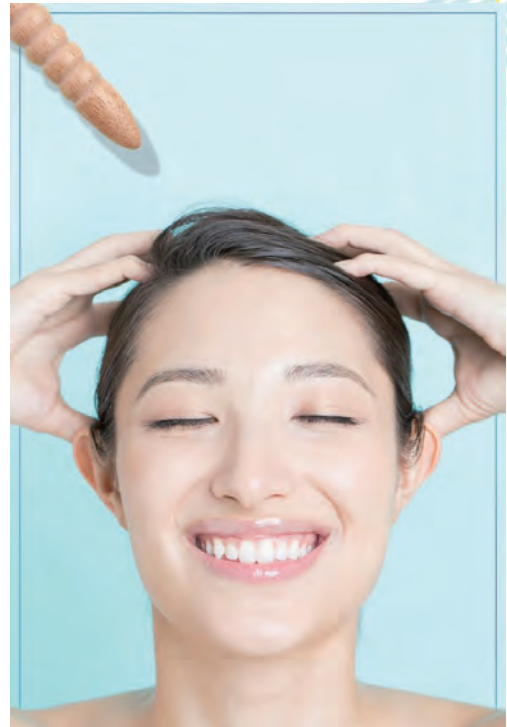


## 누르면 '피로'가 풀려요

하루종일 업무와 학업을 하다 보면  
어깨나 근육이 뭉쳐 피로함이 더한데요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지압효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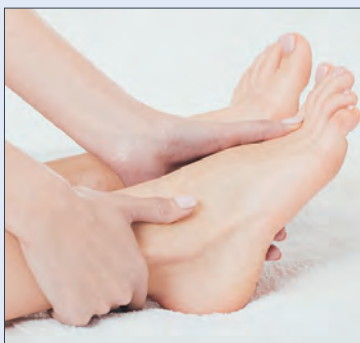
### 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10초 이내로 꾹 눌러주면  
경직된 근육이 풀림  
에어컨 바람의 추위 등  
추위로 근육이  
경직됐을 때 1~2분 정도  
눌러주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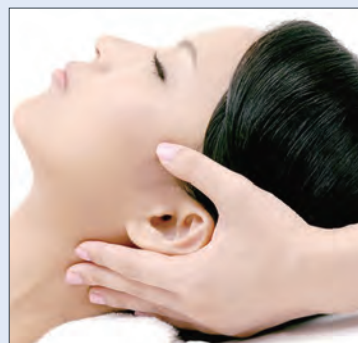
### ②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엄지와 검지 발가락  
두 뼈 사이에는 오목한 부분의  
'태충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4~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생리통과 불면  
증에 효과적



### ③ 태양혈

눈썹 끝과 눈초리 끝부분이 만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인  
'태양혈(관자놀이)'  
태양혈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눌러주면 눈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두통해소  
효과까지



### ④ 함곡혈

체했을 때 흔히 많이 지압하는 부위  
'함곡혈'은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의  
뼈 만나는 움푹한 부분에 위치  
함곡혈에 반대쪽 엄지속가락으로  
30초 정도 지압해 주면 경직된 근육  
이 풀어져 전신의 기혈순환에 도움.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소화불량, 허  
리통증, 비염, 발열 등에도 좋음



### ⑤ 안면혈

양쪽 귓볼 뒤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의 **움푹 들어간**  
지점에 있는 '안면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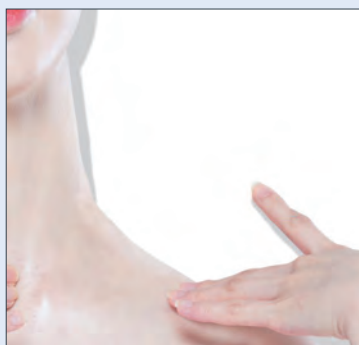
안면혈을

**10초 정도 눌렀다가**  
**5초 정도 뺐다가**를 반복하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숙면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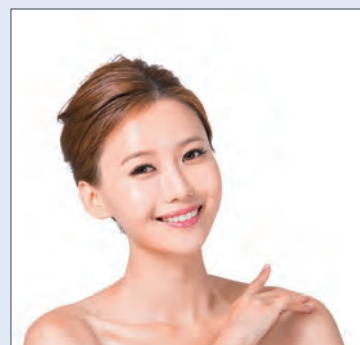
### ⑥ 승모근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뭉치는 어깨**  
중지와 검지로  
승모근 부위를 **세게 꼬집어**  
주면 뭉쳐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피로가 해소됨



### ⑦ 쇄골

쇄골 중앙지점부터  
시작해 그 위아래를 **3~5초간**  
깊게 눌러주면  
**어깨 및 목의 통증**을  
잡아줄 수 있음  
**두통완화**에도 도움



### ⑧ 목덜미

목덜미를  
따라 **양손**으로  
**마리에서 어깨 쪽**으로  
꼭꼭 **눌러주면**  
피로해소 효과



### ⑨ 무릎

무릎 양옆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스트레스 및 피로해소**에 탁월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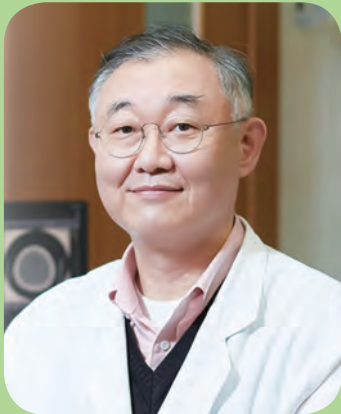
### ⑩ 눈 주위 뼈

눈을 감은 뒤  
**엄지와 검지**로 눈 주변  
전체를 꼬집어 주듯이  
마사지해 주면 **눈의 피로**는  
물론 **혈액순환**에도 도움



출처 : 아시아투데이

# 수면무호흡증 방치하면 삶의 질 저하, 합병증까지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김성완 교수

수면무호흡증이란 자는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멎거나, 불규칙해지는 질환을 말한다. 발생 원인에 따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화될 경우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생명에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 ▶ 수면무호흡증의 종류

수면무호흡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잘 때 숨길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히면서 공기 흐름이 단절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동반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코골이, 호흡 정지, 입마름, 만성 기침, 야뇨증이 있으며,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아침 두통, 낮 시간 동안의 과한 졸림증, 피로, 불면증, 기억력 저하 등이다.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뇌로부터 호흡 근육에 전달되는 신경 신호가 일시적으로 중단,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호흡을 하려는 노력이 없어지면서 무호흡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몸 안의 산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잠을 자는 도중 자주 깬다.

## ▶ 수면무호흡증의 원인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비만이 있는데, 체중이 10% 증가할 때마다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6배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 코 안쪽 비중격이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코 안의 물혹 등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작은 턱, 뒤로 처진 턱 등 얼굴 골격 이상 역시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력의 경우, 얼굴 생김이 비슷하여 숨길의 모양도 비슷해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자녀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성별이 남성인 경우,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말단비대증이 있는 경우에서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증가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발병요인이 있다.





## ▶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다원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무호흡-저호흡의 시간당 횟수가 진단의 기준이 되는데 5회 이상인 경우에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30회가 넘으면 중증이 된다. 이 외에도 환자의 낮 증상과 밤 증상, 전반적인 수면상태, 잠 패턴 등을 확인하며, 고혈압·심부전·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저하·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체질량 지수, 목둘레, 허리둘레, 코 내부, 입천정, 목젖, 편도, 혀뿌리 등의 구조를 확인한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크게 양압기, 구강 장치, 수술적 치료가 있다. 먼저 양압기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잠을 잘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면, 마스크를 통해 양압의 공기를 불어넣어 통로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로 시행된다. 보통 코에 착용하고, 환자에 따라 입까지 덮는 마스크를 쓰기도 한다. 환자가 잘 사용하면 대부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양압기 치료가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되다보니, 사용하는 환자들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강 장치는 대부분 ‘하악 전방이동 장치’로,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여 아래턱을 앞으로 이동시켜 2차적으로 혀뿌리를 앞쪽으로 당겨준다. 잠을 잘 때 혀뿌리가 뒤로 밀리면서 공기가 흐르는 길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구강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턱관절의 상태를 살펴보고 적용한다. 구강 장치를 착용하면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교합의 문제 등의 합병증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이것

역시 착용해야만 효과가 있고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조절하는 개념이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모든 환자에게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술식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 적용 부위는 목젖, 편도, 목 안쪽의 옆면 등 막힘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해결해주는 다양한 술식이 있으며 그 밖에 늘어져 있는 혀뿌리, 입천정 부위를 고주파를 이용해서 수축시키거나 최근에는 실을 이용해서 입천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다. 그리고 얼굴 골격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술식을 쓰거나 설골이라 불리는 부위를 당겨주는 수술이 있고, 위턱과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양악전진술이 있는데 양악전진술은 수술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수술에 비해 가장 침습적인 수술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체중 조절은 과체중 또는 비만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 ▶ 수면무호흡증과 합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질환과 높은 관련이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다는 연구도 있다. 이외에도 뇌졸중 발생이 3~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재발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021년 하반기 질병·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을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
|------|-------------------------------------------------------------------------------------------|
| 추진배경 |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 주요내용 |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 시행일  | 2021년 5월 11일                                                                              |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Tel. 044-215-7136)                                                        |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2개소(국가,영남권) → (변경) 5개소(국가,영남권 + 호남권,충청권,강원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
|------|---------------------------------------------------------------------|
| 추진배경 |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심리지원 제공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개정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Tel. 044-202-3873)                                   |

##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을 통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여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21.5.17.)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
|------|--------------------------------------------------------------------------------------------------------------------------------------------------------------------------------------------------------------------------------------------------------------------------------------------------------------------------------------------------------|
| 추진배경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li> <li>• (목적)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br/>②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 도모,<br/>③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li> <li>• (주요 심사지표)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li> </ul> |
| 시행일  | 2021년 12월 4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Tel. 044-202-2821)                                                                                                                                                                                                                                                                                                                        |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 '19.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여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은 7월에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 참여기관 모집 공고 및 시범사업 시행일 별도 안내 예정
    - ▣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케이터 기반이 확보될길 기대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1.29.)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
|------|---------------------------------------------------------------------------------------------------------------------------------------------------------------------------------------------------------------------------------|
| 추진배경 |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관) 한의원 대상,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참여 가능</li> <li>• (대상자) 진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li> <li>• (서비스 내용) 진찰, 처방, 침술·뜸·부항 등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li> </ul> |
| 시행일  | 2021년 8월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Tel. 044-202-2745)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합니다.
  -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
|------|---------------------------------------------------------------------------------------------------------------------------------------------------------------------------------------------------------------------------------------------------------------------------------------------------------------------------------------------|
| 추진배경 |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 강화로 국민의 신뢰 확보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확대)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 (추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급~3급)수급권자</li> </ul> </li> <li>• (지급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li> </ul> <p>*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p>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Tel. 044-202-3632)                                                                                                                                                                                                                                                                                                     |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 개통에 해당
  -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1.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1.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단,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 ▣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 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 하였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차세대 구축사업 보도자료 ('19.4.)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
|------|----------------------------------------------------------|
| 추진배경 |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 주요내용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 시행일  | 관련 기능 2021년 9월 개통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Tel. 02-6261-28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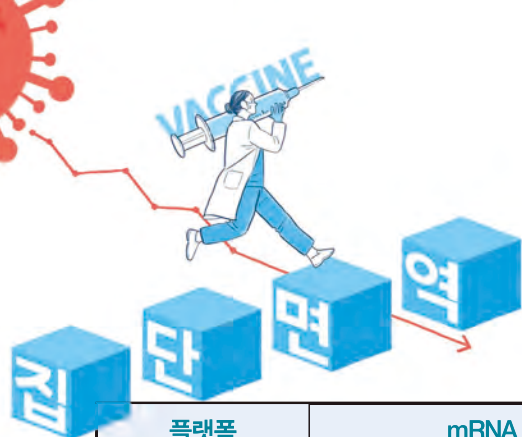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는 어떤 백신이 도입되나요?

- 모든 국민이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총 9천 9백만 명분에 대해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 국내 도입하는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2종(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안센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 2종(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재조합 백신 1종(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1천만명 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분, 화이자 3천3백만명 분, 안센 6백만명 분, 모더나 2천만명 분, 노바백스 2천만명 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2월 10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3월5일), 안센 코로나19 백신(코비드-19백신 안센주, 4월7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월21일)이 허가되었습니다.

## 각 백신별 특성과 용법은 어떤가요?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보관온도가  $-90^{\circ}\text{C} \sim -60^{\circ}\text{C}$ 로 보관을 위해 초저온냉동고가 필요하며, 초저온냉동고가 구비되어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또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전 희석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2^{\circ}\text{C} \sim 8^{\circ}\text{C}$ 에서 냉장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은 4주~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나, 접종 간격이 넓을수록 예방효과 및 면역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8주~12주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안센 코로나19 백신은 1회 접종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위팔의 삼각근 부위에 근육주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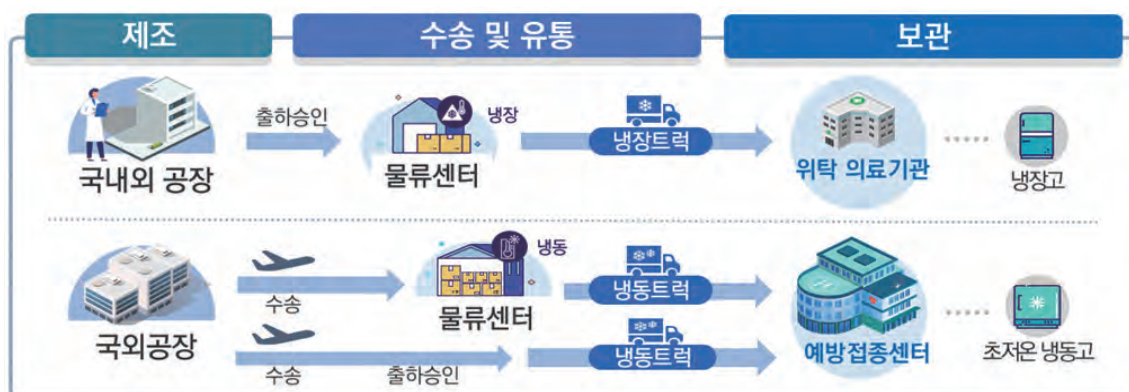


[ 백신 종류별 특성 ]

| 플랫폼       | mRNA 백신(핵산백신)              |                | 바이러스 벡터 백신                                      |                            |
|-----------|----------------------------|----------------|-------------------------------------------------|----------------------------|
| 제조사       |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br>Johnson&Johnson      |
| 백신명       | 코미나티주                      | -              | 한국아스트라제네카<br>코비드-19백신                           | 코비드19백신얀센주                 |
| 연령        | 12세 이상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구성        | 다회 투여용 바이알                 | 다회 투여용 바이알     | 다회 투여용 바이알                                      | 다회 투여용 바이알                 |
| 접종 횟수(간격) | 2회, 21일                    | 2회, 28일        | 2회, 8~12주 (* 2차접<br>종일 기준 11~12주)<br>*허가는 4~12주 | 1회                         |
| 접종량 및 방법  | 희석된 백신 0.3ml<br>근육주사       | 0.5ml 근육주사     | 0.5ml 근육주사                                      | 0.5ml 근육주사                 |
| 보관        | -90℃~-60℃(6개월)             | -25℃~-15℃(7개월) | 2~8℃(6개월)                                       | -25℃~-15℃<br>(24개월)        |
| 유통        | -90℃~-60℃(6개월)<br>2~8℃(5일) | 2~8℃(30일)      | 2~8℃(6개월)                                       | 2~8℃(3개월)                  |
| 개봉 후 저장   | 희석 후 실온(2℃~<br>25℃) 6시간    | 실온 6시간         | 실온(30℃이하)<br>6시간                                | 2~8℃ 6시간 실온<br>(25℃이하) 3시간 |

##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운송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 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합니다.
- \* 콜드체인 : 백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온도 제어 환경으로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의료기관의 백신 투여시점까지 백신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련된 모든 설비와 절차를 포함



자료 제공 : 질병관리청



**Q** 각 백신의 접종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스트라제네카는 11~12주 간격,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발사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     | 모더나 | 노바백스  |
|-------|-------------------------------------|----|---------|-----|-------|
| 플랫폼   | 바이러스 벡터 백신                          |    | mRNA 백신 |     | 합성 항원 |
| 접종 횟수 | 2회                                  | 1회 | 2회      | 2회  | 2회    |
| 접종 간격 | 8~12주(2차 접종<br>일 기준 11~12주<br>로 안내) | -  | 21일     | 28일 | 21일   |

**Q**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1차부터 두 번 접종해야 하나요?

☞ 2차 접종이 일정보다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접종이 지연되었어도 다시 1차 접종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예약 접종일에 예약 부도를 낼 경우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등 급성 병증이 나타나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사전 연락한 경우에는 예약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예방접종 당일 사전 연락 없이 예약 부도를 낼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은 어떻게 하나요?**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과 동시에 11주 후 동일한 접종 기관에서 동일한 요일에 2차 접종을 예약 완료하게 됩니다. 다만 2차 접종 일정 및 기관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2차 접종 예정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인데,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 2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 잔여 백신은 사전 예약하지 않은 1차 접종 대상자에 한해 진행합니다. 따라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는 2차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 2차 접종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될까요?**

☞ 현재 다른 종류 백신과의 교차접종 가능에 대한 근거는 없어 동일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2차 접종 시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입니다.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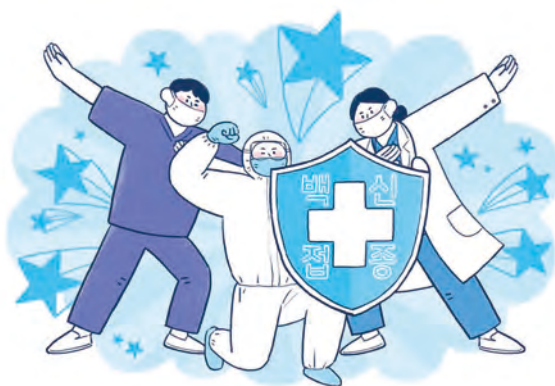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Q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 네, 접종 가능합니다.

**Q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라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가 지는 계속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는 접종 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주세요. 전자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효종이책”



### 미술의 마음 심리학, 미술관에 가다

윤현희 지음 | 지와인

미술의 심리를 알면, 그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모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왜 보이지 않을까?  
카라바조, 렘브란트, 모네, 호퍼, 로스코까지  
오늘날 예술 애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120여 점의 그림과 함께 하는  
독창적인 미술 이야기!

카라바조는 왜 목이 잘리는 그림만 그렸을까? 모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왜 잘 보이지 않을까? 휘슬러의 그림에는 왜 안개 낀 날이 많을까? 그림에 담긴 화가들의 마음은 우리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카라바조가 그린 목이 잘리는 그림에는 끔찍한 살인자와 천재 화가로서의 이중적 삶이, 황금빛이 감도는 렘브란트의 40점이 넘는 자화상은 자아 탐구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하 메르스히가 침묵하는 여성의 뒷모습만 그린 데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가진 민감성의 문제가, 덴마크의 화가들이 그린 고요한 실내 그림에는 북유럽의 행복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다.

『미술의 마음』은 명화 공부와 심리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책이다. 카라바조, 렘브란트, 모네, 호퍼, 로스코 등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부터 현대 설치 미술 작가들까지 120여 점의 작품을 아우르며, 세계적 화가들의 작품과 그 뒤에 감춰진 개인의 삶과 내밀한 마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기에 대항해시대의 더치공화국을 살았던 페르메이르,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로스코와 같이 각 시대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를 아우르는 풍경들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 10년 젊어지는 1분 뇌활동 뇌기능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삶을 가져다주는 젊은 뇌 만들기

시라사와 다쿠지 지음 | 최우영 옮김 | 생각의날개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자! 뇌가 10년 젊어진다!  
40대부터 시작되는 뇌기능 노화와 치매를 막자!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등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면 뇌가 노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나이 탓을 하거나 뇌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뇌는 30대 때 정점을 찍고, 40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노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노화 현상은 얼마든지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으며, 아주 간단한 실천들로 뇌기능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렇게 젊은 상태로 뇌를 유지하고 더 젊은 뇌를 만드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작업이나 스트레스가 될 법한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단 1분 정도만 투자하면 가볍게 바꿀 수 있는 생활습관과 식습관, 운동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뇌가 알아차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작은 변화들만 수용하면 우리 뇌는 10년 더 젊어지고 뇌기능은 더욱 활성화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활의 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 노인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치매’를 예방하고 더 젊게 살 수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젊고 건강한 뇌’, 그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부터다.

자료 제공 : 교보문고

이 달의  
사자성어

切 磋 琢 磨

절 차 탁 마

[切]끊을 절 [磋]갈 차 [琢]다듬을 탁 [磨]갈 마

## 바로 뜻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는 뜻.

## 깊은 뜻

학문과 기예, 덕행 등을 끊임없이 갈고닦는다는 의미.

## 유래

언변과 재기가 뛰어난 자공(子貢)이 어느 날 스승인 공자(孔子)에게 묻기를 「선생님,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阿諛)하지 않으며, 부자(富者)가 되더라도 교만(驕慢)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자(富者)가 되더라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니라.」 공자(孔子)의 대답(對答)에 이어 자공(子貢)은 또 묻기를 「《시경(詩經)》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군자(君子)는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처럼 또한 옥이나 돌을 쪼아 서 모래로 닦은 것처럼 빛나는 것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양(修養)에 수양(修養)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일까요?」 공자(孔子)는 이렇게 대답(對答)했다. 「자공(子貢)아 이제 너와 함께 《시경(詩經)》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과거(過去)의 것을 알려주면 미래의 것을 안다고 했듯이, 너야말로 하나를 듣고 둘을 알 수 있는 인물(人物)이로다.」

자료 출처 :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 이렇게 사용하세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나가며 '절착탁마'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중국어

## 교실

칭찬,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

## 단어

1. 嗨, 真不错啊! [hē, zhēn bùcuò a/흐, 쯔 부추오 아] 어쭙, 제법이야
2. 真有你的 [zhēn yǒu nǐde/쩐 요우 니더] 너 정말 대단하다
3. 有一手 [yǒu yī shǒu/요우 이 쇼우] 일가견이 있다, 능력이 있다
4. 有两下子 [yǒu liǎng xiàzi/요우 리앙 시아즈] 꽤 솜씨가 있다
5. 真不简单 [zhēn bù jiǎndān/쩐 부 쯔엔단] 대단하다, 굉장하다



## 날 말 퀴즈

|   |   |  |   |  |
|---|---|--|---|--|
|   | 1 |  | 2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가로힌트

1. 여러 가지 상품을 부문별로 나누어 진열 · 판매하는 대규모의 현대식 종합 소매점.
3.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
4.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

### 세로힌트

1.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생균에 조작을 가하여 독소를 약화시키거나 균을 죽게 하여 만든 주사약으로 자가 ○○, 다가 ○○ 따위가 있다.
2.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을 의미. 또는 낮에 먹는 식사.
3.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

### | 지난호 정답 |

|   |   |   |   |   |
|---|---|---|---|---|
|   |   |   |   | 박 |
|   |   |   |   | 달 |
|   | 비 | 일 | 비 | 재 |
| 군 | 대 |   | 누 |   |
|   | 면 | 봉 |   |   |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 김\*근, 곽\*희

### | 참여방법 |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문의전화 : 02)1566-2339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 | 한센 게시판 |

###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 한센시설(병원) 생활용품 또는 기록
-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 한센가족 작품(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없음

○ 응모 기간 : 상시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없음
-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 ★ 전화문의 : (02) 1566-2339
- 우편제출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         |                                                                    |
|---------|--------------------------------------------------------------------|
| 중 앙 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TEL.1566-2339 FAX.1566-2032                   |
| 서울·중부지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TEL.(02)532-6777 FAX.(02)532-9050 |
| 부 산 지 부 | 부산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TEL.(051)245-8207 FAX.(051)245-8206             |
| 인 천 지 부 | 인천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TEL.(032)515-5501 FAX.(032)515-5504           |
| 경 기 지 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 402호 TEL.(031)973-5329 FAX.(031)973-3178        |
| 전 북 지 부 |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TEL.(063)542-7822 FAX.(063)545-7820                  |
|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TEL.(062)524-3485 FAX.(062)524-3484          |
| 대구·경북지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TEL.(054)971-8975 FAX.(054)977-8975              |
| 울산·경남지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TEL.(055)584-4333 FAX.(055)584-4332            |

### ‘한센’ 편집 자문위원

|       |                                               |
|-------|-----------------------------------------------|
| 위 원 장 | 우홍선(사무총장)                                     |
| 위 원   | 박영립((재)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
| 기 획   | 석자현                                           |

#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핵심가치

**HARMONY**  
**HOPE**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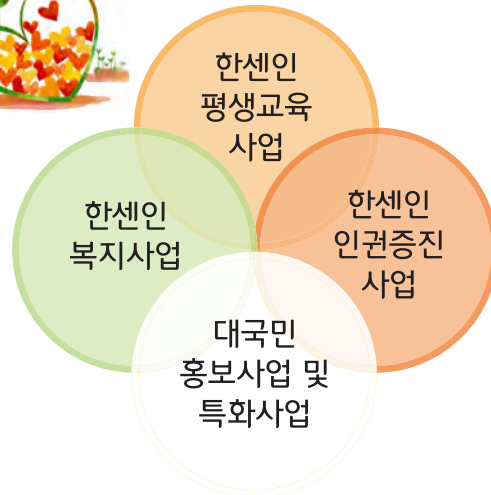


###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 사업소개 ★



### ★ 로고 ★



Shaping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세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세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